

본문: 사도행전 16 장 25-33 절

제목: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1.

한국 교회 안에서는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처럼 이해돼 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인 1999 년에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은 전도 대상자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맞는 적절한 예화들을 제시하면서 전도하는 전도공식 같은 겁니다.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전도에 접근합니다. 당시 제가 느끼기에 '이 공식만 넣어봐 그러면 구원 문제가 술술 풀려' 라는 생, 一각이 들더군요. 전도 폭발의 첫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밤에라도 죽으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다음 질문은 "만약 하나님이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전도 대상자를 이끄는 전도방식입니다.

한국의 교인들이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 장 9 절 10 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쓰였는지 고려하지 않고 문장 그대로 보면 구원을 얻는 것이 매우 쉬워 보입니다. 그냥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어지는 로마서 10 장 13 절 말씀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라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졌기에 구원을 얻는 것은 매우 쉬운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쉬운 것을 사람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기독교인들은 의아해 하면서 저 구절을 들이밀면서 구원을 강요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로마제국의 통치라는 맥락 아래 쓰여졌습니다. 엄밀히 말해 박해 상황을 전제로한 말씀입니다. 박해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로마 통치 아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2.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자마자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가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었습니다. 당시 책을 읽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에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소설은 그당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포르투갈에서 파송된 예수회 신부들이 박해 아래 천주교를 떠나서 일본 선불교로 개종하고 일본인 여자들과 결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의 선교회 본부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엘리트 선교사를 일본으로 보내는데 그 신부의 이름이 페레이라입니다. 그런데 이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에 간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페레이라 신부마저 개종했다는 소식이 들려 오죠. 그래서 상황을 수습하고 조사하고 돌아오라고 로드리고라는 신부와 함께 몇 명을 마카오를 거쳐서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로드리고 신부 눈에 비쳐진 일본의 천주교 박해와 탄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박해를 가하는 일본인들은 신부들 앞에서 신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신부가 예수를 부인하면 신도들을 살려준다고 압박합니다. 내가 돌보는 양무리들이 죽어가는 상황 아래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그들을 살려주고,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들은 계속 죽게되는데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페레이라 신부도 결국 그렇게 개종하여 일본 승복을 입고 불경을 읽는 상황에까지 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배교와 신앙고백을 왔다 갔다하는 사람입니다. 박해가 심해지면 배교를 했다가 박해가 느슨해지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 신앙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것을 매우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다는 것을 매우 쉽게 받아들인 것이죠.

로마서 10 장 9-10 절도 그렇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 장 말씀도 그렇고 박해의 상황을 전제하고 읽어야 하는 본문들입니다. 취조관 앞에서 박해 받는 현장에서 이 질문과 고백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본문이 분명히 달리 읽혀지겠죠? 앞의 성경구절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 장 3 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취조관이 지금 나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다." 아니면 "예수는 주님이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신명기 21 장 23 절과 갈라디아서 3 장 13 절에 의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해석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주 받아 죽은 자가 맞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셨고, 이제 예수는 저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통치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했다고 하죠. 먼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박탈 당했고, 배우자까지 빼앗겼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교를 바꾸는 것은 사회에서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맹정신을 가진 사람, 이성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3.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총 세 번에 걸쳐 선교여행을 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2 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듣고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왔다고 확신을 했는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빌립보에는 한 귀신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린 여종을 이용해 점을 쳐주고 돈을 버는 못된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이 그 여자 아이를 불쌍히 여겨 그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런데 그 여자 아이의 주인들은 돈벌이의 희망이 갑자기 끊어진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들은 옷을 벗겨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냥 귀신 쫓은 죄라면 이렇게 심한 벌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정치범으로 몰려 깊은 감옥에 던져진 겁니다. 발에 차꼬가 단단히 매여져 감방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된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차꼬가 풀려버렸죠. 잠을 자고 있던 간수는 놀라서 감옥으로 달려왔는데 옥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달아났다 생각하고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자살을 시도합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그를 말합니다.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에게 던진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식민지였다는 의미는 그들이 믿는 주가 주피터신과 로마황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말로 “키리오스(Kyrios)”라는 말이 주입니다. 그냥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나의 생사여탈권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생사여탈이란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말 그대로 주인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키리오스라 불렀습니다. 히브리말 성경을 헬라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야웨(Yahweh)”라는 히브리 말을 Kyrios 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로 고백했던 것이죠. 주피터와 로마황제에게 키리오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주의 최대의 권력을 가진 자로서 그들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말을 예수에게 갖다 붙인다는 것은 제 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 예수가 앉아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 장 3 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 장 9 절을 보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 졌던 이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닌 겁니다.

4.

지금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주를 바꾸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키리오스를 바꾸라는 요청인 거죠. 로마 감옥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고 로마법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의 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은 로마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법보다 더 강력하고 로마의 통치보다 더 실제적인 통치를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이 재판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로마 제국의 감옥문을 쉴 새 없이 열어버리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분명

로마 보다 더 강력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의 감옥문을 세 번 정도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로마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니다. 로마의 형벌 집행권과 감시 처벌권을 무효화 시키는 나라가 있다면 나라를 옮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떨고 있는 간수장에게 돌직구를 던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라를 옮기라는 명령이자 권면입니다. 주(Kyrios)를 바꾸라는 요청인 것이죠. 간수장의 삶의 근간을 흔들여 놓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실제로 감옥문이 열리기 전에 지진이 일어난 것을 통해 간수장의 삶의 근간을 흔들여 놓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터가 흔들려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문제를 꺼내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든지, 사업이 망하였든지 아니면 그것에 맞먹는 삶의 근간이 흔들림 앞에 서 보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터가 견고하다고 믿고, 내가 누리는 이 안전을 영구적으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한 세계가 무너지고 다른 세계 가운데로 옮겨 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영원히 계속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합니다. 이 세상도 로마 감옥처럼 흔들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나의 소속감을 옮기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속감을 옮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통치자를 바꾸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가 더 이상 나의 주가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요 키리오스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삶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류 문화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하고 패역한 주류문화로부터의 Exodus(출애굽)가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 오는 것이 구약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란 소속감을 옮기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의 속박에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속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계명에 속박된 공동체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위해 드러지게 되는 삶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따르는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적인 삶을 가장 최고의 삶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미테이터가 되는 것이죠.

5.

미국에 이민오신 분들은 이 개념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미국 사람이 되어 갑니다. 살다보면 시민권까지 미국 시민권으로 바꿉니다. 나라와 국적을 옮겨 이곳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소속감을 바꾸는 것입니다.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의 소속감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를 따르며 예수적인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처럼 미리 보여주며(foressee)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foretaste) 되는 것이구요. 그들도 소속감을 옮기며 살고 싶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여기며 소속감을 바꾼 사람들이 여기에 천국을 만들어보겠다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의 주류문화와는 다르고 반대대로 거스르는 예수 따름의 삶의 방식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대조, 대항, 대안 공동체입니다. 도심에서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숲에 가면 상쾌함을 느끼듯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곳에만 오면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구원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내 삶의 기둥뿌리를 옮겨 놓는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나의 소속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자 결단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주인을 바꾸는 이 일은 불가능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예수를 따르며 예수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이중계명에 얽매이면서도 행복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 따름의 행복한 삶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따라가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이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그룹 나눔 주제>

1.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을 비롯한 1세기 로마의 통치 아래 놓인 사람들이 '주'(키리오스)를 바꾸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주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로 옮겨가는 소속의 변화(Exodus)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적 삶의 방식(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약을 실천하는 삶)을 따르겠다는 이들이 자신이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훈련하는 곳입니다.

소그룹원들과 이 시대에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지 나눠보세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직장과 일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설교에 나눠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나눔을 가져 보세요.

\*설교 참고 : 구원이란 소속감을 옮기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의 속박에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속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계명에 속박된 공동체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위해 드러지게 되는 삶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따르는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적인 삶을 가장 최고의 삶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미테이터가 되는 것이죠.